

겨울 끝에 동백꽃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서 뒤뜰에 나갈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늘 흐린 가운데 어두운 줄만 알았던 뒤뜰이 어느 날 갑자기 환해졌다. 무엇인가? 유심히 살펴보니 동백꽃이 피고 있었다. 이전에 살던 집에도 동백꽃이 있어서 금방 알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욱 새로웠던 이유는 꽃이 너무 일찍 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봄이 올 것 같지 않았던 날씨였지만 꽃은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과 달랐던 것이다.

동백꽃은 겨울 끝에 피는 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겨울의 꽃이라고 알고 있는 동백나무는 겨울에만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따라서 늦가을에서 3-4월까지 피는 꽃이다. 그런 동백꽃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침착함 그리고 인내의 상징이다. 그런 동백꽃이 올해는 일찍 꽃을 피우고 있었고 한 달 내내 햇빛을 볼 수 없던 나에게는 참으로 환한 새로운 세상을 보는 듯했다.

오늘 그 동백꽃을 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생각해 본다. 요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다. 많은 생각들과 결정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성도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래왔다. 하나님을 알지 않기도 작정한 세상은 힘을 다하여 교회와 성도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동백꽃과 같은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동백꽃이 겸손과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아무리 겨울이 혹독해도 자신의 때를 알아 꽃을 내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 때에 어두운 세상은 새로운 맛을 볼 것이다. 세상의 색깔과 다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겸손과 인내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 우리는 동백나무가 때를 따라서 꽃을 내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한다. 그때가 혹독한 겨울과 같은 온도의 때라고 하여도 성도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기 때문이다. 세상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는 정확한 때인 것 같이 믿음의 꽃을 내야 한다. 그것이 동백꽃과 같은 성도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꽃을 피우라고 하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8절) 그 믿음의 꽃을 내야 하는 때는 지금이다. 지금 나의 처한 상황에서 믿음의 꽃을 내야한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기대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꽃과 같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고 세계 선교다.

요즘 같이 어두운 때에 사랑과 믿음의 꽃을 피우려고 몸부림치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굽힐 줄 모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